

鄉愁[향수]

넓은 별 동쪽 끝으로  
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,  
얼룩백이 황소가  
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,

——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.

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 
뽕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,  
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 
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,

——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.

흙에서 자란 내 마음  
파아란 하늘 빛이 그림어  
함부로 쓴 활살을 찾으려  
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,

——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.

傳說[전설]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
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 
아무러치도 앓고 여쁠것도 없는  
사철 발벗은 안해가  
따가운 해入살을 등에지고 이삭 줏던 곳,

——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.

하늘에는 석근 별  
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밭을 읊기고,  
서리 까마귀 우지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,

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 도란거리는 곳,

——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.